

●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발생한다.
2. 기능론, 갈등론 모두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다고 본다.
3.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문제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4. 기능론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5. 갈등론은 학교 교육의 내용, 방식이 상류층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6.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모두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7. 갈등론은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8. 기능론은 '접근 기회'의 평등을, 갈등론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9. 질적 연구는 관찰과 해석을 연구자가 같이 참여한다.
10.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제3자의 입장으로 관찰한다.
11. 질적 연구는 귀납법만을 사용하지만, 양적 연구는 연역법과 귀납법 모두 사용한다.
12. 가설의 '검증'은 가설의 '수용', '기각', '변인 간 관련 없음'을 모두 포함한다.
13.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문지법만 해당한다.
14. 질적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관찰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찰에 주의해야한다.
15. '문맹자에게 시행이 곤란'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만이다.
16. 그러나 음성 언어로만 진행되는 질문지법의 경우 문맹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17.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18.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여도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19. 자료 수집의 통제 정도, 연구의 구조화 정도: 실험법 > 질문지법 > 면접법 > 참여 관찰법

● 2. 개인과 사회 구조

20.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고 본다.
21.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강제성을 인정한다(거시적 관점).
22. 갈등론은 사회 구조가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23. 사회 명목론은 개인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24. 따라서 사회 명목론도 사회 규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25. 마찬가지로 사회 명목론이라고 해서 사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6.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27. 특정 지위에 부여되는 임무는 역할,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양상은 역할 행동이다.
28. 팀장 진급이 확정된 자가 팀장 연수를 받는 것은 재사회화와 예기사회화에 모두 해당한다.
29. 자발적 결사체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된 이익 사회이다.
30. 종친회(성, 본이 같은 종친끼리의 모임)는 이익 사회이다.
31. 사회 집단의 최소한 성립 조건은 '지속적 상호작용', '2인 이상', '소속감'이다.
32. 공동 사회는 본질 의지에 의한 접촉으로, '가족', '친족' 정도만 알아두자.
33. 사내 노동조합, 시민 단체는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며, 이익 사회이고 공식 조직이다.
34. 모든 종류의 학원(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35.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의 성격,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성격이다.
36. 차별적 교제 이론은 최초의 일탈자 또는 일탈 집단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7. 낙인 이론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 행동의 기준은 존재 가능하다 본다.
38. 그러나 낙인 이론에게 있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와 '객관적인'은 다른 것이다.
39.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을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회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40. 일탈 행동은 비공식적, 공식적 제재의 대상이 모두 될 수 있다.
41. 낙인 이론은 최초의(1차적)일탈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42.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모두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43.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모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기 어렵다.
44.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45.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목표와 상관없는 일탈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46. 일탈 행동의 사회적 '여건'은 아노미, 차별적 교제, 낙인 이론 모두 고려한다.
47. 특정 지위에 부여되는 임무는 역할,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양상은 역할 행동이다.
48. 누군가가 받은 '배역'은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9. 이미 어떤 직업을 은퇴하거나 해당 직업에서의 활동이 종료된 것도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50.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을 '사회화의 실패'로 본다.
- 51.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또 다른 사회화의 결과'로 본다.

● 3. 문화와 일상생활

- 52. 문화의 공유성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게 한다.
- 53.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 54. 문화의 전체성은 문화가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형태, 내용이 동시에 변화하게끔 한다.
- 55. 서로 다른 사회에서 자란 일관성 쌍둥이가 다른 취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의 사례이다.
- 56.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문화XX'의 형태를 가진다. (Ex. 문화생활, 문화인)
- 57.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XX문화'의 형태를 가진다. (Ex. 대중문화, 전통문화)
- 58. 하지만 56, 57번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 문화적 환경)
- 59.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60.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 수용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 61.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 62.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 63. 비교론적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 64. 상대론적 관점은 그 사회의 독특한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한다.
- 65.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절대주의'로 분류된다.
- 66.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추구한다.
- 67. 자문화 중심주의는 지나친 내집단 의식으로 인해 나타난다.
- 68. 주류 문화는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 69. 반문화는 하위문화의 일종이다.
- 70. 하위문화는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71.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는 모두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 72.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모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성원의 공통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73. 문화 동화는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 모두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 74.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 간 구분은 '원래 자문화 요소가 있었는가?'를 통해 가능하다.
- 75.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뒤따르지 못할 때 발생한다.
- 76. 75번의 반대 사례는 '기술 지체'라고 불린다.
- 77. 주류 문화도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 78. 반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모두 주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다.
- 79.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를 향유한다.
- 80. 주류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반문화로 변할 수 있다.

● 4. 사회 계층의 불평등

- 81.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82.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과 신분 상승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 83. 그러나 갈등론은 이 둘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 84. 계층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한다.
- 85. 사회 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 요인의 영향을 중시하는 것은 갈등론, 계급론이다.
- 86. 갈등론은 사회적 사용 가능 자원의 제한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87.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상대적 박탈감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 88.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합은 전체 빈곤율이 아니다.
- 89.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절대적 빈곤은 나타날 수 있다.
- 90. 절대적 빈곤도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다.
- 91.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대적 빈곤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은 존재한다.
- 92.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은 다른 개념이다.
- 93.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의미이다.
- 94.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임금액이 아니다.
- 95. 사회적 소수자가 꼭 소수(적은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96.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 노력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빈곤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이다.
- 97. 기능론은 빈곤에 대한 원인을 '빈곤층 개인의 노력'에 할당한다.
- 98. 갈등론은 빈곤에 대한 원인을 '빈곤층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할당한다.
- 99.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 100.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이다.
- 101. 사회 서비스도 미약하게나마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 102. 사회 보험 - 보편적 복지, 상호 부조의 원리, 의무 가입, 수혜자 부담
- 103. 공공 부조 - 선별적 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

● 5. 현대의 사회 변동

- 104. 인쇄, 음성, 영상 매체 → 일방향 매체
- 105. 뉴미디어 → 양방향 매체
- 106.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는 비동시성 존재,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는 비존재
- 107. 인쇄 매체를 제외한 모든 재체는 문맹자도 향유가 가능하다.
- 108. 인쇄 매체는 가장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 109. 뉴미디어는 양방향 매체라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 110.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 변동 과정의 설명이나 미래 사회 변동 예측에 부적합하다.
- 111. 순환론은 사회마다 발전 경로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 112. 진화론은 미래에 전개될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 113.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에 의한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 114.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 115. 기능론은 사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 사회 불균형(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116. 순환론이 사회 변동 과정에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117. 정보 > 산업 →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 사회의 다원화 정도,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직업의 이질성 정도, 사회 조직의 탈관료제화 정도
- 118. 산업 > 정보 → 직업의 동질성 정도, 확대 가족의 비중, 면대면 접촉의 비중,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 사회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